

# ★ 예열용 - 현대시 ★

(가)

시에서 시간과 공간은 화자의 경험이나 기억이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되는 배경으로 기능한다. 이때 시간과 공간은 화자의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을 잇는 회상 형식이나, 상징적 공간과 화자가 처한 현실의 동일시 등을 통해 현재 시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화자의 경험이나 기억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든 내면에서 떠올린 것이든, ㉠ 시간과 공간의 감각적 이미지화를 통해 화자가 직면한 현실로 받아들여져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시적 장치로 구조화된다.

(나)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호져 때 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 노을에 함복 자욱빛으로 씻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땡겨갔다.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난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몹서리쳤다. ㉡ 그런 날은 항용 강기를 만나서 돌아와 있었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둥구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절에,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애 멍하니 기다려 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준다. - 김기림, 「길」 -

(다)

한밤중에 혼자  
깨어 있으면  
세상의  
온도가 내려간다

㉢ 간간이  
늑골 사이로  
추위가 몰려온다

등산도 하지 않고  
밥 한번 안 훌리고  
내 속에서 마주치는  
한계령 바람 소리

다 풀어버려  
갈 곳이 없다  
머물지도 떠나지도 못한다

언 몸 그대로  
눈보라 속에 놓인다.

- 천양희, 「한계」 -

43. ㉠을 중심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나)는 공간감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물이 형성하는 시적 분위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는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주변 상황의 변화를 아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동적 대상을 정적 대상으로 수용하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제시하고 있다.

44.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화자가 내면의 괴로움에 맞서려 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② ㉣는 화자가 자신이 느낀 고통을 회피하려는 것을 드러낸다.
- ③ ㉢와 ㉣는 화자에게 고통을 더할 새로운 갈등 상황이 발생했음을 드러낸다.
- ④ ㉢와 ㉣는 화자가 심리적 고통을 신체적 반응과 연결하여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는 화자의 아픔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임을, ㉣는 화자의 아픔이 끊임 없이 이어지는 것임을 드러낸다.

45. (가)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는 '어머니의 상여'에 대한 경험을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떠올리는 것으로 표현하여, 회상 형식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과 이어지는 과거의 상실감을 그려내는군.
- ② (나)는 '조약돌처럼' 잃어버린 대상을 '둥구 밖'에서 여전히 '기다려 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과거에 함께했던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현재 시점으로 표현하는군.
- ③ (다)는 '머물지도 떠나지도 못'하는 상황을 '눈보라 속에 놓인' 모습으로 표현하여, 현재 화자가 처한 한계 상황을 형상화 하는군.
- ④ (나)는 '까마귀'와 '두루미'가 떠난 '강가'에서 계절이 바뀜을 통해, (다)는 '세상'에서 '바람 소리'와 마주침을 통해 상징적 공간이 현재 화자가 처한 현실과 동일시됨을 보여 주는군.
- ⑤ (나)는 떠나간 대상을 기다리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됨을 통해, (다)는 '한밤중' 깨어 있는 상황이 '내 속'에서 떠올린 '한계령'으로 연결됨을 통해 화자가 직면한 현재를 보여 주는군.